

인터뷰 조계종 교육·포교·호계위원장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교육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임명된 일면스님의 소감이 다.



교육원장 일면스님

스님은 “승가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몇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화합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선원총람 발간 등 그동안 교육원에서 전개해온 사업들을 원만히

“교육통한 승풍진작에 최선”

완수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는 스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교육 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각계의 여론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운영 경험을 쌓고 있는 스님은 “아무리 좋은 교육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기성세대 스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다”면서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과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9년 해인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6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79년 동국대 승가학과 졸업, 조계종 제9, 10, 11, 12대 중앙종회의원, 현재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 주지이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중생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포교원이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새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정련스님(부산 내원종사 주지)은 중생들을 위한 포교원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정련스님

정련스님은 “포교원은 별원화 이후 그동안 신도들의 신행체계화 및 행정과 조직체계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재가불자들의 지지와 성원에 기반한 포교원, 왕성하게 활동하는 포교원, 각계각층의 포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포교원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불교운동도 적극 지원”

특히 여성불자들의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불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과 시민활동의 중요한 역할로 발전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새롭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재불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단사태 외중에 발생한 재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고 지적한 정련스님은 수습보다는 예방 차원의 대책수립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종교 사실물 파괴자와 공격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교육원 통합론에 대해 정련스님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 아니냐”며 “포교원과 교육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8년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0년 비구계를 수계했으며, 동아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내원종사 유치원장, 문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 (재)내원청소년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97년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유아를 위한 불교교육 이론과 실천’ 등의 저서가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시기적으로 부담스런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종단을 위해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많은 종회의원들이 선출해 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계위원장 일서스님

조계종 제3대 호계원장에 선출된 일서스님은 호계위원을 “종현종법 질서가 최대한 지켜지는 풍토 조성”과 각종 탈법사건을 예방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종단 분규와 관련된 징계문제에 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현실을 감안하면 호계위원의 독립적인 입지 구축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스님은 호계원법을 대폭 개선해 합리적인 호계행정

“법집행 종단화합 차원 처리”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종현종법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종단화합 구현을 위해 가급적이면 벌금이나 제적등의 중징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징계 방안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일서스님은 입법기관이 호계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원법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스님은 종단분규 관련 스님들의 징계에 대해 “화합적인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종단 여론이 강력한 징계와 온건적인 대처로 나뉘어고 있어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가장 합리적인 징계관 징계 담당 당사자 이해하고 굴복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1936년 경남 함양출생. 56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5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통학사 불암사 등 선원사 입수한거 성만, 법주사강원 대교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조계종 제4, 5, 6, 8, 10, 12대 종회의원 및 제8대 종회의장 역임.

일면태 기자 (ytlm@buddhopia.com)

\*본지 208호4면 일서스님 프로필 중 출생지, 득도연도 및 은사 등은 오석이었음을 알립니다.

“화합 ‘디딤돌’ ...분규종식 기대”

월하스님 ‘유감 성명’ 배경과 전망

통도사 본말사 대중의견 수렴 정화회의 ‘중정교시 봉행’ 명분 잃어

월하스님이 1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는 종단 안팎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조계종 사태의 정점에서 있었던 월하스님이 통도사 대중들의 합의임을 강조하며 “종단 운영방침에 순응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분규가 마무리 될 것 이란 여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중앙종회가 월하스님의 방장 추대를 취소하고 영축총림 통도사의 총림 해제 까지 논의 했던 점, 해종행위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도 작금의 무게로 통도사가 부담을 느끼게 했다는 분석이다.

월하스님의 친필 성명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도사 대중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던 상태에서 통도사 본말사 대중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해 들어 통도사가 종단에서 고립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져 왔다. 신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월 15일부터 전국의 총림을 돌며 방장 스님들과 원로스님들을 만나 종단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월하스님만 만나주지 않은 데 대한 종단내부의 비판이 적지않았다.

거기다 정화개혁회의가 새로운 총무원 체제를 꾸렸지만 불교 내부의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주목 받지 못했으며 그간 가담했던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 점차 이탈 세력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도 ‘중대한 결실’을 직감적으로 풍운한 매개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고산스님을 중심으로하는 조계종의 중앙 총무원이 빠르게 정상화의 노정을 밟아 온 것도 이번 성명서 발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무장 고산스님은 종단의 원로종진들을 폭넓게 만나며 종단 운영의 안정 기조를 다졌으며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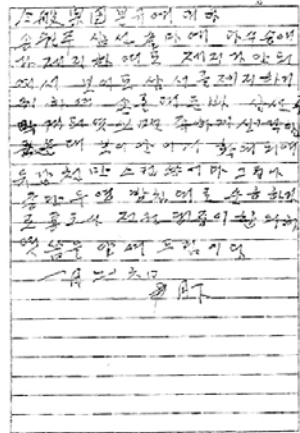
일어서는 조계종’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신선하게 유지해 온 것과는 반대로 정화개혁회의는 명분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

월하스님의 성명서는 불교계에 “이제 분규종식”이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인 정영스님은 “중정교시로 정화개혁회의가 출범했지만 정정이라고 해서 정화개혁회의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월 29일에는 정화회의의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정교시 봉행을 최대의 모토로 내걸었던 정화개혁회의가 지금에 와서 월하스님의 성명서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교계 안팎의 지배적 의견이다. 안정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표방하고 있는 종단의 전체적 정서로 볼 때 월하스님의 “종단 운영 방침 순응” 입장은 정화개혁회의의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 조계종 사태는 아직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 종단 외적인 위상살추는 상당기간 회복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 있다. 거기다 중앙종회가 구성한 해종특위



월하스님이 26일 발표한 친필 성명서.

의 활동도 적잖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최소의 징계와 최대의 관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무원과 종회는 물론 불자들의 묵시적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가 지속적인 활동을 고수한다면 징계의 문제는 점점 풀기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월하스님이 발표한 성명서가 종단화합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 분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일면태 기자

옛날 인도의 바라나시에 극제라는 거사가 살고 있었다. 집안이 어려운 그는 아들 우바국제가 장성하자 점포를 열어 장사를 시켰다. 하루는 아세가 라는 아라한이 점포에 왔다가 우바국제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흑백의 물방울을 갖고 있다가 착한 생각이 나면 흰물을 놓고 악한 생각에는 검은 물을 놓아라.” 우바국제는 가르침대로 실천했다. 처음에는 검은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바국제는 돌을 보던서 마음을 다스렸다. 점점 흑백이 같아지고, 흰물이 많아지고 검은물은 없

되고, 경찰관들은 ‘성의표시’까지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보·기아사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일, 요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법조계 비리들은 뇌물과 무관치 않다.

뇌물은 양심을 외면한 검은 돈이다. 우바국제의 검은 돌과 같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다보면 거액의 뇌물을 거리낌없이 받는 ‘관행’이 생기게 된다. 크고 작은 검은 돈이 많이 거래되는 사회는 어

두울 수밖에 없다. 고건시장은 뇌물 은 비리 적 결대회에서 ‘지자이름(知者利廉)’을 역설했다. 목민심서 옮기면 청심초장에 있는 말로 현명한 사람은 청렴함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아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꼭 실천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6근을 바로 하라는 경전의 말씀이 되새겨 본다.

“너는 눈을 바르게, 귀를 바르게, 코를 바르게, 입을 바르게, 몸을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하라.”(正行經)

검은물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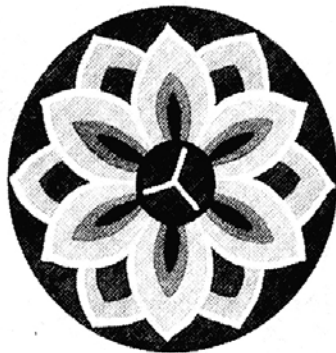
목어 뇌물

있게 되었 다. 그는 착한 생각이 왕성해져 마침내 초과(初果)를 얻었다. 정자를 가르치는 (현우경)에 있는 이야기다. 고건 서울시장이 비리척결대책회의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는 간부는 공직에서 영연히 추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뇌물거부 경찰관에게 가산점을 주고있다. 이로인해 “잘바달라”고 금품을 건넌 시민이 사법처리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敎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2) 법 과 : 00명
3) 불교미술과 : 00명
나. 교양과정(1년제) : 00명
2. 용사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과정
1) 교양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동),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제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풍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용사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등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총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라. 경서원(☎733-3345~6)